



# 태권도 학생선수가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스포츠 라이프스킬 및 전이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김광<sup>1</sup> · 임태희<sup>2</sup> · 배준수<sup>3\*</sup>

1. 용인대학교, 박사 2. 용인대학교, 교수 3. 용인대학교, 박사

## 요약

**목적** 이 연구는 학생선수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스포츠 라이프스킬 및 전이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중·고등학교 태권도 겨루기선수 313명(남자=261, 여자=52, 평균=16.37세)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상관관계·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라이프스킬은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스포츠 라이프스킬 및 전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삶으로 전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제어** 긍정적 청소년 발달, 동기 분위기, 사회성, 스포츠인성, 일반화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 학생선수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신체·심리 기술뿐만 아니라 긍정적 발달에 보탬이 되는 내적 자산(internal assets)도 함께 습득할 수 있다(Lim et al., 2021). 내적 자산이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돕는 사회심리적 역량이다(Holt et al., 2017). 이러한 사회심리적 가치와 역량은 회복탄력성(resilience)·그릿(grit)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라이프스킬(life skills)'은 실천적인 기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Holt,

2016; Lim & Jang, 2017).

라이프스킬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이나 도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행동·정서·인지 기술을 말한다(Bae, Lim, & Jang, 2019; Hodge, Danish, & Martin, 2013). 요컨대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목표설정 기술,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갈등해결 기술, 주변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선수들은 태권도가 강조하는 무예이자 스포츠로서의 가치(예: 예절·감정조절·긍정적 태도·배려·협동 등)를 깨닫고 연습하면서 라이프스킬을 배울 수 있다(Lim et al., 2021a).

태권도를 통해 개발된 선수들의 라이프스킬은 일상(예: 학교·가정·직업 등)에 녹아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Gould,

이 연구는 김광의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junsbae57@naver.com

Chung, Smith, & White, 2006). 이를 ‘라이프스킬 전이 (transfer of life skills)’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이 스포츠에서 개발한 내적 자산을 스포츠가 아닌 다른 영역(예: 가정·학교·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ierce, Gould, & Camiré, 2017). 다시 말해 스포츠를 통해 내면화한 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일반화 과정이 라이프스킬 전이다(Hodge et al., 2013).

예를 들어 태권도에 참여하는 어떤 학생선수는 지도자나 동료 선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을 배운다. 태권도를 통해 배운 이 기술은 교실이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생선수들이 태권도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치들(예: 목표설정·감정조절·스트레스 대처 등)은 대부분 실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므로 여러 상황에 전이될 수 있다. 실제로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im, Bae, Seo, & Yang, 2020)에 따르면 선수들이 태권도 환경에서 개발한 라이프스킬은 삶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쳤다.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는 크게 암묵적 접근(implicit approach)과 명시적 접근(explicit approach)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Turnidge, Côté, & Hancock, 2014). 암묵적 접근은 스포츠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다. 이는 비의도적·비계획적 접근이므로 지도자는 선수들이 태권도 기술을 숙달하거나 경기력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면 명시적 접근은 암묵적 접근과 반대로 지도자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실점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면서 감정조절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 후에는 감정조절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가르친다.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에 대한 암묵적·명시적 6단계 모델(Beane, Kramers, Forneris, & Camiré, 2018)에 따르면 지도자가 훈련의 체계를 만들고(1단계)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2단계)하는 것은 암묵적 접근에 속한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에 대해 논의(3단계)하고 연습하는 것(4단계), 라이프스킬 전이에 대해 논의(5단계)하고 연습하는 것(6단계)은 명시적 접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암묵적인 단계(1~2단계)에 머물지라도 일정 수준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는 발생할 수 있다(Chinkov & Holt, 2016). 그 이유는

선수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Holt et al., 2017). Pierce et al.(2017)은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가 서로 호혜적 관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선수가 속해 있는 집단의 분위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포츠심리 영역에서 지도자가 형성하는 분위기는 선수들의 인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인식하고 있다(Fry & Gano-Overway, 2010). 이를 가리켜 사회심리적 분위기(psychosocial climate)라고 부른다(Jang, Kim, & Cho, 2019).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유사한 가치·특질·신념 등을 공유하는 환경적 특성이다(Stark & Newton, 2014).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크게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와 동기 분위기(motivational climate)로 구성된다(Stark & Newton, 2014). 케어링 분위기는 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배려·격려하는 분위기를 말한다(Noddings, 1992). 선수들이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 보살피는 것 그리고 관심을 두는 것은 케어링 분위기를 형성한다. 한편 동기 분위기는 두 가지 상반된 세부 요인을 포함한다. 숙달(과제지향) 분위기는 성공과 실패의 준거가 자신이 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집단 분위기를 말한다. 반면 수행(경쟁지향) 분위기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유능감을 느끼는 집단 분위기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내적 가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스포츠 인성(Jang, 2017)·도덕행동(Kang, Lim, & Jang, 2018)·자기관리(Kim, Kang, & Kim, 2010)·자신감(Kwon, 2018)·회복탄력성 및 내적동기(Kim, An, Jeong, & Sung, 2020) 등 선수들의 내적 자산을 대표하는 변인들과 관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라이프스킬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Lim, Bae, Kwon, & Yun, 2021b; Pierce et al., 2017).

일찍이 해외에서는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선수들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 해왔다(MacDonald, 2010). 즉 지도자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Holt et al., 2017). 가령 Cronin & Allen (2018)은 지도자가 형성하는 자율성 지지 분위기가 라이프스킬 개발은 물론 안녕감(well-being)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스포츠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

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다양한 연구들(Holt et al., 2017; Lim, Kwon, & Bae, 2021c; Pierce et al., 2017)은 공통적으로 팀의 분위기와 같은 환경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한 사회심리적 분위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연구 대부분이 이론적 개념 제시나 문헌고찰에 의한 질적연구로 수행(Holt et al., 2017; Pierce et al., 2017)되어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양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의 관계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 즉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과 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및 전이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가설 및 모형

### 1)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의 관계

Holt et al.(2017)의 연구는 사회심리적 분위기를 구성하는 케어링과 숙달·수행 분위기가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들은 스포츠 PYD 영역에서 수행된 63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하고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선수 개인은 스포츠 영역에서 PYD 분위기를 지각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선수들의 라이프스킬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팀의 ‘긍정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Pierce et al., 2017).

한편 팀의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소속된 선수들의 사회적 가치(예: 대인관계·의사소통)나 심리적 가치(예: 긍정적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Fry & Gano-Overway, 2010). 실제로 Jang (2017)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사회심리적 분위기 중 숙달 분위기와 케어링 분위기는 스포츠 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

행 분위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팀의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선수들의 공정성·진실성·스포츠퍼슨십과 같은 사회심리 가치나 내적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자들의 논리(Fry & Gano-Overway, 2010; Holt et al., 2017)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킬은 선수들의 긍정적 발달에 보탬이 되는 내적 자산과 사회심리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sup>1-1</sup>〉 케어링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sup>1-2</sup>〉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sup>1-3</sup>〉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전이의 관계

주로 지도자(감독 및 코치)에 의해 형성된 사회심리적 분위기(Gano-Overway et al., 2009)는 라이프스킬 개발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킬 전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Pierce et al. (2017)이 제안한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은 라이프스킬 전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 환경에서 지도자가 형성한 케어링 분위기 및 동기 분위기와 같은 요소들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Martin, Camiré, & Kramers (2021)는 캐나다의 교사 코치(teacher-coach, 교사이면서 코치직을 수행)를 대상으로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를 위한 이들의 역할을 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교사 코치는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이를 교실로 전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Jacobs & Wright(2018)의 모델에서도 스포츠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전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sup>2-1</sup>〉 케어링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sup>2-2</sup>〉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sup>2-3</sup>〉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라이프스킬과 라이프스킬 전이의 관계

스포츠 환경에서 개발된 라이프스킬은 반드시 스포츠가 아닌 다른 환경으로 전이되어야 한다(Lim et al., 2020). 라이프스킬 개발은 선수들이 스포츠 영역에서 라이프스킬 보고 느끼고 연습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Lim & Jang, 2017). 그리고 라이프스킬 전이는 개발된 라이프스킬을 스포츠 환경이 아닌 실제 삶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ierce et al., 2017). 즉 개념적 특성을 고려할 때 라이프스킬의 개발은 라이프스킬의 전이를 위한 선행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Lim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이 지각한 코칭 행동은 라이프스킬에 그리고 라이프스킬은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Weiss(2006)는 골프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인 The First Tee를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골프를 통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전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학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포츠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적용하는 것의 일부분임을 의미한다(Pierce et al., 2017). 따라서 라이프스킬과 전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sup>3-1</sup>〉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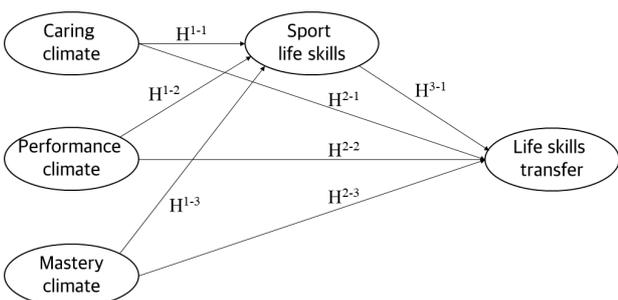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태권도 겨루기선수 318명이었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31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 선수는 261명, 여자 선수는 5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37 (SD=1.51)세였고 122명(39%)의 선수가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ategory	n	%
gender	male	261	83.4
	female	52	16.6
age	14	41	13.1
	15	60	19.2
	16	62	19.8
	17	69	22.0
	18	53	16.9
	19	28	8.9
winning prize	national competition	122	39.0
	provincial competition	69	22.0
	local competition	28	8.9
	have no	94	30.0
	total	313	100.0

2. 측정도구

1) 사회심리적 분위기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케어링 분위기와 동기 분위기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Jang, 2017). 케어링 분위기는 Newton et al.(2007)이 개발하고 Shim(2012)이 변안한 한국판 케어링 분위기 척도(Caring Climate Scale, CCS)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13문항(예: '선수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분위기는 Walling, Duda, & Chi(1993)가 개발한 스포츠 동기 분위기 질문지(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 PMCSQ)를 Jang(2013)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숙달 분위기(예: '운동기능

이 향상되었을 때 칭찬을 받는다), 수행 분위기(예: '남보다 운동을 잘해야만 칭찬을 받는다') 2요인으로 총 21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케어링 분위기는 .909, 수행 분위기는 .774, 숙달 분위기는 .659로 나타났다.

## 2) 스포츠 라이프스킬

스포츠 라이프스킬은 Jang et al.(2020)이 개발한 학생선수용 라이프스킬 척도(Life Skills Scale for Student-Athletes, LSSSA)를 태권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설정(예: '나는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시간관리(예: '나는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스트레스 대처(예: '나는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 긍정적 생각(예: '나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갈등해결(예: '나는 타인과 갈등이 생기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의사소통(예: '나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감정조절(예: '나는 분노를 느끼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로 7요인 26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713에서 .881의 범위로 나타났다.

## 3) 라이프스킬 전이

라이프스킬 전이 측정도구는 Weiss et al.(2014)이 개발한 검사지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Lim et al.(2018)의 한국판 라이프스킬 전이 검사지(Korean Life Skills Transfer Survey, KLSTS)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만나기와 인사하기(예: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눈다'), 감정조절(예: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목표설정(예: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친구갈등해결(예: '친구와 갈등을 겪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해결책을 찾는다'), 건강관리(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한다'), 다름인정하기(예: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 도움 주고받기(예: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신뢰할만한 사람을 찾아간다')로 7요인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659에서 .907의 범위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태권도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을 조율하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운동부는 IRB 지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윤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참여자들은 자기 평가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즉시 회수하였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스크리닝(date screening)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버전과 AMOS 23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경향성과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mean,  $M$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왜도(skewness)·첨도(kurtosis) 값을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대 값으로 3 이하일 때 그리고 첨도는 절대 값이 8 이하일 때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Kline, 2015). 둘째,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및 전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값( $r$ )을 이용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  3이하, CFI .90 이상, TLI .90 이상, RMSEA .08 이하일 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이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및 전이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표준편차·왜도·첨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의 평균

범위는 2.15~4.55로 나타났다. 왜도의 범위는 -1.11~.78, 첨도의 범위는 -.88~.42로 나타났다. 모든 수치는 Kline (2015)이 제시한 기준치(왜도 3이하, 첨도 8이하)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이 수집된 자료는 정규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변인의 전체 하위요인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심리적 분위기 중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과 전이의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대로 수행 분위기는 부적인 상관을 갖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297~.683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상관계수는 .80보다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5).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Table 2>에 제시하였다.

## 2. 구조모형 검증

###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 , CFI, TLI, RMSA를 산출했다. 그 결과  $\chi^2/df$ 는 2.68, TLI는 .87, CFI는 .89 그리고 RMSEA는 .073(90% CI=.067, .080)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근삿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acceptable)'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은 검증되었다.

###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가설인 H<sup>1-1</sup>(케어링 분위기 → 라이프스킬,  $\beta=.21, p<.05$ )과 H<sup>1-2</sup>(숙달 분위기 → 라이프스킬,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Facto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caring	1																
2. performance	-.361**	1															
3. mastery	.543**	-.112*	1														
4. GS	.337**	.019	.354**	1													
5. TM	.270**	.039	.299**	.604**	1												
6. CS	.365**	-.096	.301**	.463**	.550**	1											
7. PT	.351**	-.105	.309**	.362**	.393**	.712**	1										
8. PS	.411**	-.179**	.443**	.463**	.428**	.574**	.567**	1									
9. CM	.070	-.220**	.047	.038	.059	.006	-.005	.189**	1								
10. ME	.338**	-.198**	.339**	.334**	.320**	.437**	.425**	.544**	.051	1							
11. MG	.119*	-.009	.105	.288**	.246**	.317**	.300**	.246**	-.063	.219**	1						
12. ME-T	.345**	-.202**	.321**	.350**	.383**	.574**	.554**	.521**	.162**	.478**	.426**	1					
13. GS-T	.394**	-.175**	.374**	.515**	.496**	.458**	.425**	.521**	.141*	.384**	.261**	.514**	1				
14. PF	.381**	-.200**	.379**	.485**	.419**	.478**	.425**	.683**	.232**	.500**	.336**	.593**	.594**	1			
15. MH	.357**	-.097	.362**	.376**	.440**	.452**	.413**	.451**	.085	.396**	.202**	.462**	.450**	.499**	1		
16. AP	.440**	-.297**	.381**	.385**	.326**	.373**	.362**	.530**	.283**	.482**	.333**	.539**	.475**	.596**	.554**	1	
17. HE	.452**	-.180**	.491**	.399**	.298**	.392**	.357**	.607**	.142*	.409**	.247**	.455**	.519**	.615**	.472**	.669**	1
M	4.55	2.15	4.21	3.90	3.64	3.72	3.81	4.03	3.74	3.80	3.31	3.71	3.91	3.99	4.10	4.30	4.23
SD	.57	.99	.59	.69	.85	.89	.80	.73	.98	.77	1.05	.84	.82	.76	.70	.65	.71
skewness	-1.11	.78	-.51	.12	-.20	-.31	-.41	-.54	-.88	-.38	-.24	-.11	-.24	-.48	-.41	-.60	-.51
kurtosis	.23	.15	-.19	-.88	-.24	-.41	-.13	.23	.42	.02	-.44	-.45	-.67	.13	-.67	-.68	-.69

\* $p<.05$ , \*\* $p<.01$

Note. GS=goal setting, TM=time management, CS=coping with stress, PT=positive thinking, PS=problem solving, CM=communication, ME=managing emotion, MG=meeting and greeting, ME-T=managing emotion for transfer, GS=goal setting for transfer, PF=problem solving with friends, MH=managing health, AP=appreciating diversity, HE=helping each other

Table 3.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	paths	B	$\beta$	S.E.	t	result
H <sup>1-1</sup>	caring climate → life skills	.16	.21	.08	2.11*	adopt
H <sup>1-2</sup>	performance climate → life skills	.01	.02	.04	.23	reject
H <sup>1-3</sup>	mastery climate → life skills	.39	.46	.09	4.22***	adopt
H <sup>2-1</sup>	caring climate → life skills transfer	.00	.00	.05	-.05	reject
H <sup>2-2</sup>	performance climate → life skills transfer	-.07	-.11	.03	-2.35*	adopt
H <sup>2-3</sup>	masery climate → life skills transfer	.11	.13	.07	1.66	reject
H <sup>3-1</sup>	life skills → life skills transfer	.77	.79	.13	6.01***	adopt

\* $p < .05$ , \*\*\* $p < .001$ Model fit indices:  $\chi^2/df=2.68$ , TLI=.87, CFI=.89, RMSEA=.073(90% CI=.067, .080)

$\beta = .46$ ,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H<sup>1-3</sup>(수행 분위기 → 라이프스킬)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H<sup>2-2</sup>(수행 분위기 → 라이프스킬 전이),  $\beta = -.11$ ,  $p < .05$ 만이 채택되고 나머지 H<sup>2-1</sup>(케어링 분위기 → 라이프스킬 전이), H<sup>2-3</sup>(숙달 분위기 → 라이프스킬 전이)은 기각되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설 H<sup>3-1</sup>(라이프스킬 → 라이프스킬 전이),  $\beta = .79$ ,  $p < .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총 7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은 채택되었고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실선은 채택된 가설이고 점선은 기각된 가설이다. 또한 그림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회귀계수( $\beta$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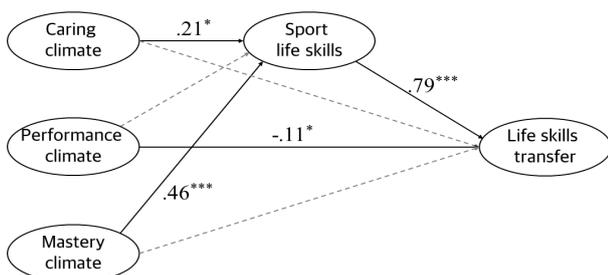


Figure 2.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structural mode  
(\* $p < .05$ , \*\*\* $p < .001$ )

#### IV. 논 의

이 연구는 학생선수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및 전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sup>1-1</sup>, H<sup>1-3</sup> 채택). 반면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sup>1-2</sup> 기각). 따라서 지도자에 의해 형성되는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라이프스킬의 개발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Holt et al.(2017)과 Pierce et al.(2017)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가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스포츠 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Jang, 2017), 숙달 분위기는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연구(Stanger, Backhouse, Jennings, & McKenna, 2018), 지도자의 긍정적 코칭행동이 라이프스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Lim et al., 2020)도 이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모두 팀의 긍정적 분위기와 환경이 라이프스킬 개발 및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스포츠 라이프스킬의 개발 과정을 설명한 이론들(Hodge et al., 2013; Holt et al., 2017; Lim et al., 2021c; Pierce et al., 2017)은 공통적으로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도자나 팀의 동료들이 형성한 분위기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달 방향과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Gano-Overway & Guivernau (2018)의 연구는 지도자가 어떻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은 'SCENE'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SCENE은 지도자가 선수를 지지하는 것(Support athletes), 선수들과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Connect with team

members), 선수들을 동기부여하는 것(Empower athlete), 선수들끼리 서로 보살피는 것(Nurture care in team members), 신체·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Establish a safe environment)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수행 분위기가 라이프스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수행 분위기의 개념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행 분위기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승리를 지향하는 분위기다(Walling et al., 1993).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문스포츠 환경은 선수들에게 과정보다 결과를 강조한다. 이는 태권도 종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태권도 학생선수 역시 지도자나 부모가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덕적 인지를 왜곡하거나 스포츠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Kim & Yang, 2015). 그러나 라이프스킬은 반칙보다 공정을 요구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배움을 추구한다(Cronin & Allen, 2017; Weiss et al., 2014). 이 때문에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숙달 분위기와 케어링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라이프스킬 전이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H^{22}$  채택). 반면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21}$ ,  $H^{23}$  기각). 따라서 지도자가 형성하는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를 저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선수가 태권도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체계 속에서 라이프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Pierce et al., 2017).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느 학생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태권도 선수들 또한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주로 생활한다. 이들은 운동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선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운동부 내에서 보낸다. 더욱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학에도 태권도 선수들은 하계 훈련이나 동계훈련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선수들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삶에 적용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Gould & Carson(2008)은 효과적인 라이프스킬의 전이를 위해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학습한 라이프스킬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 라이프스킬 코칭 모델(Beane et al., 2018) 역시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라이프스킬 전이에 대해 논의하고 연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내 스포츠 문화를 반영한 스포츠 라이프스킬 전이 모델(Lim et al., 2021c)에 따르면 스포츠에서 학습한 내적 자산을 삶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과정의 이해가 중요하다. 즉 선수들이 태권도를 통해 배운 가치들이 삶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유사하게 지각한다면 이것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따라서 지도자는 기술지도 과정에서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겨루기 경기 전 상대에게 인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삶에서도 인사를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반면 수행 분위기와 전이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수행 분위기가 전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행 분위기를 인지한 태권도 선수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Kang et al., 2018), 수행 분위기가 스포츠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Jang, 2017)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수행 분위기가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라이프스킬 전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Pierce et al.(2017)은 라이프스킬 전이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선수들의 태권도 참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도자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가르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도자는 경쟁에서 승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라이프스킬과 라이프스킬 전이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라이프스킬은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31}$  채택). 이는 선수들이 태권도를 통해 개발한 라이프스킬이 태권도 환경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에서 학습한 라이프스킬이 내면화 과정을 거쳐 삶으로 적용하는 일반화 과정에 도달한다는 주장(Hodge et al., 2013; Pierce

et al., 2017)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Lim et al.(2021c)는 스포츠 라이프스킬이 전이 가능성 지각·라이프스킬의 혜택 인식·동기화된 사용 등과 같은 인지 과정을 거쳐 내면화되고 스포츠 밖 환경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학자들(Chinkov & Holt, 2016)은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가 암묵적인 접근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명시적인 접근일 때 더 효과적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Camiré et al., 2012). 따라서 지도자들은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적으로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지도자들은 스포츠에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것이 태권도 밖 환경으로 라이프스킬을 전이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이 태권도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이 삶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선수들의 내적 자산인 라이프스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개발 및 학습한 라이프스킬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는 라이프스킬 전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도자들이 사회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수들이 태권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삶으로 전이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langle H^{1-1} \rangle$  ‘케어링 분위기가 라이프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langle H^{1-3} \rangle$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가설  $\langle H^{1-2} \rangle$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즉 지도자가 조성하는 케어링 및 숙달 분위기는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설  $\langle H^{2-2} \rangle$  ‘수행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가설  $\langle H^{2-1} \rangle$  ‘케어링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와 가설  $\langle H^{2-3} \rangle$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즉 지도자가 조성하는 수행 분위기는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케어링 분위기와 숙달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가설  $\langle H^{3-1} \rangle$  ‘라이프스킬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즉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은 라이프스킬 전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학생선수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라이프스킬 및 전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태권도 환경에서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감독이나 지도자 같은 주요타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적절한 사회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습득에 기여하고 나아가 태권도를 통해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삶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라이프스킬은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개선이나 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태권도 학생선수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도자의 역할에 관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Newton et al.(2007)이 개발한 케어링 분위기 척도를 Shim(2012)이 한국어로 번안한 단일요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비록 이 척도가 스포츠 분야에서 다수 활용된 바 있지만 최초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선수들과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분위기는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케어링 분위기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교사나 지도자 혹은 동료나 선배 등에 의해 형성 된다(Gano-Overway et al., 2009).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 타자를 지도자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

회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타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팀 동료·부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선수들이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로 라이프스킬 발달 및 전이를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선수가 지각한 사회심리적 분위기가기 때문에 실제 지도자의 행동이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은 지도자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지도자는 선수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실제 지도자의 자료와 선수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 References

- Bae, J. S., Lim, T. H. & Jang, C. Y. (2019). Exploring the Life Skills Model for Taekwondo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0(1), 81-91.
- Bean, C., Kramers, S., Forneris, T. & Camiré, M. (2018). The implicit/explicit continuum of life skills development and transfer. *Quest*, 70(4), 456-470.
- Camiré, M., Trudel, P. & Forneris, T. (2012). Coaching and transferring life skills: Philosophies and strategies used by model high school coaches. *The sport psychologist*, 26(2), 243-260.
- Chinkov, A. E. & Holt, N. L. (2016). Implicit transfer of life skills through participation in Brazilian jiu-jitsu.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8(2), 139-153.
- Cronin, L. D. & Allen, J. (201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Life Skills Scale for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8, 105-119.
- Cronin, L. D. & Allen, J. (2018).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aching climate, life skills development and well-being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13(6), 815-827.
- Fry, M. D. & Gano-Overway, L. A. (2010). Exploring the contribution of the caring climate to the youth sport experien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2(3), 294-304.
- Gano-Overway, L. & Guivernau, M. (2018). Setting the SCENE: Developing a caring youth sport environ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in Action*, 9(2), 83-93.
- Gano-Overway, L. A., Newton, M., Magyar, T. M., Fry, M. D., Kim, M. & Guivernau, M. R. (2009). Influence of caring youth sport contexts on efficacy-related beliefs and 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329-340.
- Gould, D. & Carson, S. (2008). Life skills development through spor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58-78.
- Gould, D., Chung, Y., Smith, P., & White, J. (2006). Future directions in coaching life skills: Understanding high school coaches' views and needs. *Athletic Insights*, 8(3), 1-9.
- Hodge, K., Danish, S. & Martin, J. (2013).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life skills interven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8), 1125-1152.
- Holt, N. L. (2016).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New York: Routledge.
- Holt, N. L., Neely, K. C., Slater, L. G., Camiré, M., Côté, J., Fraser-Thomas, J. & Tamminen, K. A. (2017). A grounded theor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based on results from a qualitative meta-study.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0(1), 1-49.
- Jacobs, J. M. & Wright, P. M. (2018). Transfer of life skills in sport-based youth development programs: A conceptual framework bridging learning to application. *Quest*, 70(1), 81-99.
- Jang, C. Y.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port character scale*. The University of Utah, USA.
- Jang, C. Y.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erceived Social Psychological Climate on Sport Character among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Exercis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8(2), 1-11.
- Jang, C. Y., Kim, K. W. & Cho, E. H. (2019). Effects of the Social Psychological Climate on Athletes' Sport Character: A Multilevel Analysis. *Korean Society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21(2), 45-55.
- Jang, C. Y., Lim, T. H., Bae, J. S., Jung, H. W. & Kim, Y. H.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fe Skills Scale for Student-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1(2), 27-41.
- Kang, M. K., Lim, T. H. & Jang, C. Y. (2018). Do Caring Climate and Motivational Climate Predict Moral Behavior of Taekwondo Athlete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9(1), 77-93.
- Kim, N. Y., An, J. S., Jeong, S. H. & Sung, Y. S.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of Caring, Resilience, Intrinsic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University Elite Athlete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22(4), 80-89.
- Kim, S. U. & Yang, M. H. (2015). The Effect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on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in Athletes :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7(4), 25-35.
- Kim, Y. K., Kang, J. H. & Kim, D. J.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Sport Mental Power of Football Players. *Korea*

- Coaching Development Center*, 12(3), 9-16.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 Kwon, S. H. (2018). The Structural Motivation of Taekwondo Team's Training Motivation, Sports Enthusiasm and Sports Confidenc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6(4), 1199-1208.
- Lim, T. H. & Jang, C. Y. (2017). The application and its effect of life skills program in sport.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8(3), 577-591.
- Lim, T. H. (2019). Changes in Life Skills and Learning Attitudes of Student Athletes by Applying PEAK Program.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0(2), 15-28.
- Lim, T. H., Bae, J. S. & Jang, C. Y. (2018). The Validation of Korean Life Skills Transfer Survey (KLS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9(4), 1-12.
- Lim, T. H., Bae, J. S., Kwon, O. J., & Yun, M. S. (2021b). *Sport Psychology*. Seoul: Pakyoungsa.
- Lim, T. H., Bae, J. S., Seo, S. Y. & Yang, Y. K. (2020). Verifying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Coaching Behavior, Life Skills, and Transfer to Life Among Taekwondo Athlete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1(1), 145-165.
- Lim, T. H., Kwon, O. J., & Bae, J. S. (2021c). Conceptual Model of Life Skills Transfer in Sport.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2(4), 509-521.
- Lim, T. H., Kwon, O. J., Yun, M. S., Bae, J. S., & Yang, Y. K. (2021a).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PEAK program for collegiate Taekwondo athlet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32(1), 33-50.
- MacDonald, D. J. (2010). *The role of enjoyment, motivational climate, and coach training in promoting the positive development of young athle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 Martin, N., Camiré, M., & Kramers, S. (2021). Facilitating life skills transfer from sport to the classroom: An intervention assisting a high school teacher-coach.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25.
- Newton, M., Fry, M., Watson, D., Gano-Overway, L., Kim, M. S., Magyar, M. & Guivernau, M. (200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aring climate scale in a physical activity setting. *Revista de Psicología del Deporte*, 16(1), 67-84.
- Noddings, N.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Pierce, S., Gould, D. & Camiré, M. (2017). Definition and model of life skills transfer.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0(1), 186-211.
- Shim, Y. S. (201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erceived Caring Climate Scale and Its Influenc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8(3), 133-142.
- Stanger, N., Backhouse, S. H., Jennings, A. & McKenna, J. (2018). Linking motivational climate with moral behavior in youth sport: The role of social support,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disengagement.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7(4), 392-407.
- Stark, A. & Newton, M. (2014). A dancer's well-being: The influence of the social psychological climate during adolescenc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5(4), 356-363.
- Turnidge, J., Côté, J. & Hancock, D. J. (2014). Positive youth development from sport to life: Explicit or implicit transfer? *Quest*, 66, 203-217.
- Walling, M. D., Duda, J. L. & Chi, L. (1993). 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 Construct and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5(2), 172-183.
- Weiss, M. R., Bolter, N. D. & Kipp, L. E. (2014). Assessing impact of physical activity-based youth development programs: Validation of the Life Skills Transfer Survey (LS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5(3), 263-278.
- Weiss, M. R., Bolter, N. D. & Kipp, L. E. (2016). Evaluation of The First Tee in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Group comparisons and longitudinal trend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7(3), 271-283.

## Verification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Psychosocial Climate, Sport Life Skills, and Transfer of Taekwondo student-athletes

Guang Jin<sup>1</sup> · Lim, Tae-Hee<sup>2</sup> · Bae, Jun-Su<sup>3</sup>\*

1. Yongin University, Doctor 2. Yongin University, Professor 3. Yongin University, Doctor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sycho-social climate, life skills, and transfer of student-athletes.

**Method** Participants were 313 (male=261, female=52, Mage=16.37) Taekwondo athlete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Results** First, caring and mastery climate, the sub-factors of psycho-social climate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kills, while performance climat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econd, performance climate, the sub-factors of psycho-social climate,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kills transfer, while caring and mastery climat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life skill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kills transfer.

**Conclusion** The psycho-social climate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life skills and transfer. Therefore, coaches should foster a caring and mastery climate to promote athletes' life skills development and help them transfer these skills to other domains and use them.

**Keywords**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tivational climate, sociality, sport character, generalization

논문투고일: 2022.02.04.

논문심사일: 2022.03.10.

심사완료일: 2022.03.27.

논문발간일: 2022.03.30.